신작 만나는 즐거움…독립영화의 응원과 위로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3주년 기획전
11~30일 '광주 단편 신작' 등
'젊은이의 양지'…감독과 대화도

지난 2018년 광주영상복합문화관(광주시 동구 서석동) 6층에 개관한 광주독립영화관은 독립영화 상영뿐 아니라 영화 교육 등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 영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는 개관 3주년을 맞아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3주년 기획전'을 선보인다.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 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광주 시민과 만나온 광주독립영화관을 응원하고, 코로나 19로 위축돼 있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영작 대부분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작품들로, 지역 영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신작들과 다양한 독립영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1일에는 광주에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감독들의 신작 단편 세 편을 묶은 '광주단편신작'이 열린다. 송원재 감독의 'REcycle', 허지은·이경호 감독의 '고마운 사람', 유명상 감독의 '행복한 순간을 담아 드립니다'를 상영한다. 'REcycle'은 대기업 취업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대타를 구해야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를 다루며, '고마운 사람'은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담임선생님과 재회한 주인공이 못다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다. '행복한 순간을 담아 드립니다'는 커플들의 사진을 찍어주면 반드시 그 커플은 헤어지는 징크스를 가진 사진작가의 이야기다.

'고마운 사람'과 '행복한 순간을 담아 드립니다'는 광주에서 처음 소개되는 작품이며, 영화 상영 후에 세 편의 감독들과 함께하는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영화제에서만 공개된 미개봉작도 스크린에 오른다. 2020년 전주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에 초청된 '진도'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16일 무료로 상영한다. 17일 스크린에 오르는 '온 세상이 하얗다'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태백으로 떠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로드무비로 상영 후에는 김지석 감독과 박가영 배우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눈다.

'진도'

'카일라스 가는 길'

또,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들의 고된 삶을 조명하는 '젊은이의 양지', 여든이 넘은 어머니와 감독인 아들의 사색과 치유의 여행 다큐멘터리 '카일라스 가는 길', 혼전임신과 이혼 등에 대한 소신을 코미디로 보여주는 '애비규환' 등은 지난해 개봉작으로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처음 선보인다. 세 작품 모두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기획전의 마지막 날에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김현정 감독의 '입문반'과 '외숙모' 두 편을 상영하는 '김현정 감독전'이 열린다. 2019년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인 '입문반'은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시나리오 수업을 듣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았으며, '외숙모'는 임신 5개월 차 민경이 엄마와 함께 외삼촌의 첫 번째 제사에 참석하면서 시작된다. 작품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관람료는 5000원이며 인디앤아트시네마(indieartcinema.com)나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은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222-189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청년디지털 일자리 참여
지역문화예술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 9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이 포스트코로나 대응 일환으로 '2021지역주도형 청년디지털문화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청년디지털문화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지역문화예술단체(법인·기업 등 포함)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예술단체'는 청년 디지털 인력을 지원 받아 온라인 문화예술 창·제작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인력'은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를 제공 받아 경험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화예술단체(법인·기업 등) 모집을 통해 10개를 최종 선정하고, 별도 채용공고를 통해 청년인력 10명을 선발해 각 단체에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사업 예산은 총2억500여만원이다. 단체는 배치된 청년인력의 매월 인건비 중 10%와 4대보험 법정부담금 등을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ysh1707@gjcf.or.k)하면 된다.

10개 단체 선정 이후에는 오는 20~30일까지 청년인력 1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진행한다.

선정 인력은 5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각 단체에서 근무하며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비대면 플랫폼 관리 등 온라인 관련 업무를 맡는다. 문의 062-670-749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후위기 시대, 예술 패러다임 고민하다

'바림' 10일부터 강연·워크숍

광주에 기반을 둔 예술작가들의 모임인 '바림'은 기존의 장르를 벗어난 예술작업 등을 통해 광주시민과 공동체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예술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 '제로의 예술'의 하나로 기후위기 시대에 비거니즘적 시각으로 예술의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강연과 워크숍을 준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 주제로 나뉘어 10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된다.

먼저,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끌어쓴다' 시간에는 재난, 동물권, 인류세, 기후위기, 비거니즘을 고민한다. 오는 10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첫 강연은 '비효율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동물해방과 장애해방의 교차성 등에 관해 이야기하며, 17일에는 환경정책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짚어내는 '저항하는 녹색'의 탈환을 위해'가 열린다.

이어 20일 '재야생화: 인류세의 미래를 탐색하는 전환적 실험'을 비롯해 '투발루 프로젝트 - 섬: 시티'(21일), '코로나19 속 인간-동물 얽힘'(27일), '예술 속의 부엌과 식탁'(5월1일), '사랑할까, 먹을까'(5월1일) 등의 강의도 열린다.

강사로는 최명애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조교수, 강주현 그래픽 디자이너, '정치적인 식탁'의 저자 이라영,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감독이자 '사랑할까, 먹을까' 저자 황윤〈사진〉등이 참여한다.

워크숍은 '서기 22,021년, 인류세의 화석 증거를 보고합니다'(18일 오후 2시·서울)과 '공존을 위한 균형의 테이블'(24~25일 오후 2시·광주) 두 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5월부터 펼쳐지는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온 '전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되며,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까' 시간에는 예술창작의 방식과 재료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프로그램 신청은 바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강연과 워크숍은 온라인(줌)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통역이 제공된다. 문의 010-4882-820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현대수필은 어떻게 고전수필을 계승했나

오덕렬 '고전수필의 맥을 잇는…'

"현대수필의 뿌리는 고전수필이다. 뿌리 없는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오덕렬 수필가는 '붓 가는 대로'라는 '잡문론'에 빠져 수필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특히 서구 문예사조 영향으로 수필 장르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채 내려온 우리 수필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돌아본다. 그는 고전문학 가운데 '동명일기' 한 편만 잘 연구했더라도 도(道)를 앞세운 우리의 문장론이 서구문예사조가 몰고 온 '창작론'에 대응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

이번에 오 수필가가 펴낸 '고전수필의 맥을 잇는 현대수필 작법'(풍백미디어)은 우리의 현대수필이 어떻게 고전수필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해 왔는지를 조명한다.

저자는 중·고등 교과서에 실린 고전수필 중 15편을 엄선해 수록했다. 시대적으로 고전문학 중에서 고대문학에 속하는 '이옥설(理屋設)'에서부터 기행수필의 전범을 보인 한글 기행수필 '낙민루', 직유법 묘사가 뛰어난 한글 고전 기행수필 '북산루', 4단 구성으로 삶을 성찰한 고전수필 '수오재기', 침선 도구를 의인화한 내간체 고전수필 '규중칠우쟁공론' 등을 아우른다.

오 수필가는 고전수필과 현대수필은 창작을 매개로 그 맥을 잇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전통단절론이니 이식문화론과 같은 이론들을 제하고 두 문학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일례로 '가람 문선 序'(이병기), '달밤'(윤오영), '보리'(한흑구)의 어느 구석에도 에세이적 흔적이 묻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보다 '흰옷', '구들장', '아랫목' 등 한옥의 정서가 현대수필에 가득 배어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오 수필가는 광주고에서 교장으로 퇴임했으며 광주고 문학상을 제정해 매년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 모교인 광주고 교장 재임 시절 '光高문학관'을 개관해 문학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수필의 현대문학 이론화 일환으로 수필의 문학성 회복에 앞장서고 있으며 수필집 '복만동 이야기', '항꾸네 갑시다' 등과 평론집 '창작수필을 평하다' 등을 발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35명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1 인생나눔교실' 호남권 멘토봉사단·멘티기관(그룹)·튜터를 모집한다.

'인생나눔교실'은 장·노년 멘토와 아동·청소년 등 새내기 세대(멘티)가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인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인문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멘토봉사단과 멘티기관(그룹)은 오는 26일 오후 2시까지, 튜터는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jbct-life@daum.net)로 신청하면 된다.

'멘토봉사단'은 전북, 전남, 광주시 거주자로 만 50세(1971년생 또는 이전 출생자) 이상 은퇴자, 은퇴예정자 등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멘티기관(그룹)'은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소, 자유학기제 중학교, 군부대 등의 기관 또는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인문가치를 나누고 싶은 소규모 그룹(5명 이상) 이면 되며 80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튜터'는 전북, 전남, 광주시 거주자로 유사 사업 경험 5년 이상 또는 멘토의 멘토링 기획·운영 관련 튜터링 및 매개와 지원이 가능한 7명을 선발한다. 문의 063-230-744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